

안녕

An-nyeong

우송한국어교육원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우송학원 60주년 기념호 안녕 20호 특집 기획

우송학원 60주년 기념 총장 인터뷰

안녕 특집 1

- 우송학원 60주년

안녕! Essay1

- 한국에서의 일상

안녕 특집 2

- 우송한국어교육원 언어연수

안녕! Essay2

- 일상 속의 나

편집부 기획 1 - 새로운 TOPIK 분석

편집부 기획 2 - 유학생 말하기 강화 프로그램

편집부 기획 3 - 동구 즐기기

편집부 기획 4 - 한국어 경시대회 한국답사

터줏대감

안녕 in campus

안녕 in the world

우송 Culture Camp

C O N T E N T S

안녕 An-nyeong

통권 제20호 2014 June
우송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뉴스레터



통권 제20호 2014 여름호

- 발행인 : 이근태
- 편집인 : 이강록
- 편집지도교수 : 이주리, 윤남희, 윤지영, 하재선, 문진형, 임근영, 이소연
- 편집장 : 필경명
- 편집위원 : 라인준, 쇼후르흐, 빅토리아, 교몽교, 진전전, 이리정, 루찬선, 뜻중, 잔휴빈, 송림원, 채장홍, 장함
- 발행일 : 2014. 6. 12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300-719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55-3
TEL. 042.629.6697~8

Issue 1 (애깃거리 1)

- 04 **우송학원 60주년 기념 총장 interview**
又松学园 60周年华诞校长访谈
- 06 **안녕 특집 1 우송학원 60주년**
「安宁」特刊1 又松学园60周年华诞
- 08 **안녕! essay 1**
한국에서의 일상 韩国的日常生活
- 16 **안녕 특집 2 - 우송한국어교육원 언어연수**
「安宁」特刊2 又松韩国语教育院 语言研修
- 21 **안녕! essay 2**
일상 속의 나 日常生活中的我

Issue 2 (애깃거리 2)

- 28 **편집부 기획 1 - 새로운 TOPIK이 보인다**
编辑部 策划1 - 新TOPIK解析

30 편집부 기획 2 - 유학생 말하기 강화 프로그램 编辑部 策划2 - 留学生口语能力强化课程

Culture map (즐길거리)

34 편집부 기획 3 - 동구 즐기기 编辑部 策划3 - 乐在东区

1. 중앙시장 中央市场
2. 하늘공원 天空公园

36 편집부 기획 4 - 한국어 경시대회 한국답사 编辑部 策划4 - 韩语演讲比赛 行在韩国

40 터줏대감资深学子

1. 졸업생 염백초에게 한국이란?
毕业生闫百超心中的韩国
2. 우리를 사랑하는 교수님께
致最敬爱的老师
3.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品杜鹃, 敲水鼓

News (들을거리)

44 안녕 in campus 「安宁」校园之声

48 안녕 in the world 「安宁」世界之声 해외 교육원 소식 海外教育院消息栏

54 우송 culture camp



우송 60주년과 함께 스무 번째 「안녕」 출간을 자축합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의 한 학기만큼의 삶을 가지런히 모아 놓습니다.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소식들, 그리고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볼 내용들을 제대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의 빛나는 생각들, 아름다운 추억들을 제대로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모쪼록 아쉬움의 행간을 너그러이 채워주시고, 부디 「안녕」이 밑거름이 되어 풍요로운 유학생생활 하시길 기원합니다.

热烈祝贺又松60周年校庆暨安宁第20期出版。

我们愿把一学期共同经历过的每一天聚集起来并展现给大家。努力把开心的、愉快的、欢乐的,认真思考过的内容丝毫不差地表现出来。在此,也对无法将每一位朋友、前辈以及后辈的精彩故事展现给大家而深表遗憾。我们将大家美好的回忆记入到安宁里,衷心祝愿这能成为大家难忘留学生活的一部分。

우송학원 60주년 기념

Interview



우송 60주년과 비전

[필경명] : 우송학원은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축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총장님] : 60주년을 맞이한 것은 그간 학교가 한국 사회와 역사에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국의 지성들이 우송을 선택하고 지지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60년도 이와 같기를 기원합니다. 우송학원 60주년을 모두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쇼쿠루크] : 지나온 60년은 큰 도약이었습니다. 앞으로의 60년

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송대학교의 장기적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총장님] : 우리의 장기적 비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학교를 확장해 나간다는 '미션2020'입니다. 현재 우송대학교와 솔브릿지에는 1,500여명의 국제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3,000명 정도로 늘리는 것입니다. 세계 최상급 10개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5개의 외국 캠퍼스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다른 아시아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경영대학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AACSB (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받으려고 노력했고 AACSB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 인증에 걸맞은 좋은 교수진과 교육 환경을 갖춘 것입니다. 다른 지방대뿐만 아니라 서울소재의 대학교들과 비교해 저희 학교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KTX3가 개통되어 서울과 대전을 오고 갈 때 지금보다 40분이 더 절약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60년은 아주 멋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글로벌 인재가 된다는 것

[필경명] : 우송대학교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화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세계에서 글로벌 인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총장님] : 첫 번째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언어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이 와서 한국어와 영어로 공부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자신감과 소프트 스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쟁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스킬과 팀워크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취업

[쇼쿠루크] : 새로운 시대의 직업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총장님] :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에 대해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앞으로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마음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직업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에게 전하는 말

[필경명] : 유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 유학생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과 네트워크를 쌓아 두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어에 도전해 보십시오. 최대한 시간을 유용하게 쓰고,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드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만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두 행운을 빕니다.



인터뷰 : 필경명, 쇼쿠루크



촬영 : 장함

60 WOOSONG

지나온 60년,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60년
60年过去, 当今, 60年将来



학생들과 고 김정우 이사장님

고 김정우 이사장님께서 가끔 우송대 교정 잔디밭에 누워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이근태 한국어교육원 원장님의 눈에 그리움이 맺혀 있었다. 어려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시작한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무거워지는 어깨를 쉴 곳이 필요하셨을 것이다. 그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 가시던 곳이 교정 한편의 잔디밭이었을 것이다. 잔디밭에 누워 깨끗하고 무한한 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교정에서 만난 학생들의 환한 웃음을 떠올리며 우송의 학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것이고, 조국의 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지친 마음을 다독이셨을 것이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맑은 우송의 하늘 아래에서 우송의 학생들은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갈뿐만 아니라 세계와 함께 잘 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莘莘学子与已故金正雨理事长

在韩国语教育院院长李根泰先生的眼前, 不时会浮现出已故 金正雨理事躺在又松校园草坪上的情景。在大韩民国百废待兴之际, 为了大韩民国之崛起, 理事长开始了教书育人的重任, 承载的期望越来越大, 肩负的责任也越来越重, 所以他也需要一块地方稍作放松休息停留, 也许这校园中的一小块草坪就是可以让他这颗操劳的心稍作休憩的地方吧。躺在青青草坪上, 看着一望无际的天空, 他会是在思考什么问题呢? 也许在他脑海中浮现出在校园中遇见的学生们, 想起学生们灿烂热情的笑容, 希望又松的每一位莘莘学子都能够幸福快乐; 也许是在思考如何为祖国的发展而贡献自己的力量。一转眼50年风雨已过, 又松的天空依旧清澈, 在这片蓝天下又松的莘莘学子们不仅在为了祖国的明天而努力拼搏着, 而且正在开启与国际接轨共同发展的新篇章。



학교 전경

우송학원 50년 기념사에서 우송을 ‘행복한 나무’라 했다. 행복한 나무는 필시 열매 맺을 꽃을 보면서 희망을 꿈꾸는 나무, 세상의 바람을 품어 먼 데 소식들을 들려주는 지혜의 나무, 스스로 50년을 성장해 왔듯 사람을 품어 성장하게 해주는 나무일 것이다. 그 50년 이래로 또 10년, 이 큰 나무 아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 꾸고, 배우고 성장하였다. 우송 60년이 된 지금 우송은 여전히 행복한 나무다.



学校全景

在又松学园五十华诞贺词中说到又松是一棵“幸福的大树。”这颗幸福的大树，是硕果累累的树，是充满希望的树，传播世界讯息的智慧的树。50年的茁壮成长史，培养了无数的英才。五十年之后又经历了十年成长，在这棵大树下，有无数少年怀揣梦想，幸福地学习和成长。六十年的又松，今天依旧是一棵创造幸福的大树。



학교 앞 풍경

50여 년 전 선배들의 봉사 장면 속의 학교 앞 풍경은 정말 여기가 학교 앞인지 전혀 상상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학교를 갈 때면 진창에 신발과 바지춤이 젖었다는 이제는 연로하신 선배님들의 말씀은 아주 먼 옛날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만큼 많은 변화가 우송에 있었고 그 변화를 우송은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이끌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의 60년, 그 뒤의 우송대학교 앞길이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해 보았다.

지금은 커피숍과 식당들이 늘어선 학교 앞 거리를 웃고 떠들며 걷던 우리는 50년, 60년 뒤의 우송을 생각해 보았다. 우송 120주년의 어느 날 젊은 후배들이 우리에게 우송 120주년의 감화를 물어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적어도 한 시대를 제대로 산 선배로 남아야겠다는 것으로 마음이 일치되었다. 우송 60주년을 우송의 일원으로서 맞이하는 우리는 자긍심과 진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우송 60주년 스스로 자축하고 이 진지하고 즐거운 기억을 안녕 20호에 기록하고자 한다.



学校前的风景

回忆起五十多年前前辈们在校园门口义务劳动时的场景，大家简直无法相信以前的校门口竟是那般的荒凉。上年纪的前辈们常说：“每每去学校经过那块烂泥地时，都会把鞋子及裤腿打湿。”对于我们来说，看到如今的又松门口，感觉以前的场景离我们竟是如此遥远，这一切都见证了又松的快速变化与迅猛发展。那六十年后的又松，又会发生怎样的变化呢？让人十分期待！

如今，在学校周边经营着各种各样的咖啡厅和食堂。我们谈笑风生地走在学校前的街道上，不禁畅想50年或60年后的又松。又松一百二十周年的某一天，如果年轻的后辈们问我们对于又松一百二十年华诞有何感想时，我们会说些什么呢？相信我们一致会对后辈们说：“作为大家的前辈，我们未枉费今生”。喜迎又松六十华诞，作为又松的一份子，我们感到无比骄傲与自豪，同时也感到肩所承担责任的重大。让我们为又松六十华诞献上我们自己的祝福。让我们把这美好的时刻登载在《安宁》第二十期上，作为永久的纪念。

» 편집부

essay 1

한국에서의 일상

나의 첫 한국 봄나들이

어느덧 추운 겨울이 가고 미풍과 가랑비에서 봄이 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겨울을 묵묵히 이겨낸 자연이 어김없이 파릇파릇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그 속에서 나는 봄을 즐기고 싶었다.

일기예보에서 날씨가 좋다고 하길래 공부의 부담과 생활의 무료함도 달랠 겸 친구와 계룡산에 갔다. 졸졸졸 맑고 깨끗한 개울물 소리가 청아했다. 아기자기한 징검다리 위에 앉아서 작은 물고기와 놀았다. 모습을 나타냈다가 잡으려고 하면 쏙사게 도망을 가며 나와 숨바꼭질을 했다.

유리 같이 맑고 투명한 수면 위로 나무의 어린 나뭇가지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올해는 어떻게 꾸며볼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처음 해보는 산행이라 만만치 않았지만 친구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다. 숲 속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의 노래가 내 귀를 즐겁게 했고 알록

달록 작고 예쁜 꽃들이 내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줬다. 산을 오르는 한국인들의 얼굴마다 행복의 꽃이 핀 것 같았다.

땀을 흘리고 난 후 먹은 봄 향기 물씬 풍기는 상차림은 더 이상 다른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었다. 봄은 조용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 속에 있는 나는 봄과 함께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이다. 여러분도 한국이 주는 봄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 보실래요.



≫ 글로벌서비스경영학부 2학년 진홍매

초여름의 시작에서 산을 찾다.

여름이 살포시 내려앉은 5월, 자연은 연두색 한 가지 색깔로 가득 차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따뜻한 태양의 미소를 받으며 속리산을 찾았다.



입구에서는 나무지만 벼슬을 얻었다는 800년 역사의 정이품송이 역사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높고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 터널을 따라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자연에 도취되어 오르고 또 올랐다. 길가에 자주 나타나는 처음 보는 다람쥐는 사람들을 많이 본 듯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시작은 순조로웠다. 등산을 가기 전, 등산은 시나 그림처럼 아름답고 낭만적일 것이며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낭만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산을 오를수록 더 가파르고 숨이 턱밑까지 차올랐고 무거운 다리 때문에 포기를 생각할 즈음 같이 간 선배와 선생님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정상에 올랐다. 흥분된 마음으로 오른 문장대 꼭대기에서 본 발아래로 탁 트인 시야는 나의 것이었고 시원한 바람은 그동안의 수고로움을 잊게 했다.

걷는 길이 멀어질수록 마음의 길은 가까워지고 오르는 길이 높아질수록 마음의 벽은 낮아진다고 했던가? 우리는 나무 밑에서 간식도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우정을 차곡차곡 쌓았다. 온통 푸른 녹색 바다에 폭 빠졌다가 돌아오는 길, 머리 위로 맑은 반달이 떠 있었다.

처음 이렇게 높은 산을 정복한 나 자신이 대견스러웠고 뿌듯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다. 일상이 무료하고 힘들 때는 등산을 해 보십시오. 큰 위로가 될 겁니다.



» 뷰티디자인학과 4학년 송사사

등산은 인생과 같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등산할 때의 느낌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중국에 있을 때는 등산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연휴 때 뭐 할 거예요? 유학생들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한국문화를 느끼는 것도 중요해요.”

한국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계획했지만 기차표가 모두 매진되어서 썩 대신 닭이라고 계룡산으로 등산을 가기로 했다. 선생님께서 계룡산은 경치가 좋아서 전국적으로 유명한데다가 두 시간이면 충분히 등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우리는 그 말씀만 믿고 무모한 도전을 하기로 했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계룡산 입구부터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는데 마침 산자락에 도착했을 때 흐렸던 하늘도 맑아져서 기분이 한층 좋아졌다. 또 따뜻한 햇살, 신선한 공기, 좋아하는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더욱 행복하게 했다. 문제는 산 중턱에서부터 시작됐다. 평소 운동을 안 한 나는 산에 오를수록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숨소리도 점점 거칠어져 갔다.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느라고 천천히 올라가게 되니까 몇 번이고 ‘여기서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런데 다시 친구들이 옆에서 응원을 해 주었다.

“선생님께서 두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 보자”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친구들 격려 덕분에 조금씩 조금씩 올랐다. ‘여기가 정상이겠지?’ 그러나 정상은커녕 산허리에도 도착하지 않기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라는 한국 속담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힘들게 오르지 세 시간여 만에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서 바라 본 경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기분도 훨씬 상쾌했다. 비로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인생도 등산처럼 꿈을 이루는 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아름다운 경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의 경치에 빠져서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산 정상에서 보는 경치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경치이기 때문이다.



» 건축공학과 3학년 진전진

그녀를 만나기 위한 여행

누구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다. 사람에 따라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다르겠지만 나는 부산여행을 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여행에서 지금의 여자 친구를 만났기 때문이다.

한국에 처음 와서 매일 공부에 지친 친구들은 함께 부산 여행을 계획했다. 평소 그녀는 나와는 달리 성실하고 예쁘고 노력하는 학생이었다. 그래서 여행을 안 간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뜻밖에 그녀도 우리의 계획에 찬성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감히 그녀가 내 여자 친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보기와는 다르게 노는 것도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서 우리는 함께 앉게 되었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작은 키에 귀여운 얼굴의 그녀는 무뚝뚝했지만 솔직하고 재미있었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나의 여자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녀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우리들은 예약한 호텔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똑똑한 그녀는 바로 전화

를 해서 유창한 한국어로 호텔 위치를 알아냈고 우리는 그녀 덕분에 무사히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저녁을 먹은 후 바닷가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냈는데, 그녀가 또 내 옆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사귀게 되었다.

지금도 나는 드문드문 부산행 버스를 볼 때마다 부산에서의 추억이 떠오르곤 한다. 누구나 첫 사랑과의 첫 만남은 잊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내 여자 친구와 싸우거나 오해가 생길 때마다 그날의 설렘과 간절함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한다. 그리고 그녀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려고 노력한다.



» 뷰티디자인학과 1학년 진정권

여러분들은 부산에 가보셨나요?

부산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각양각색의 황홀함이 있다. 남포동의 맛의 향연과 해운대의 바다, 부산타워의 야경이 모든 사람을 매혹시키는 곳이다.

이번 연휴에 나와 다섯 명의 친구들은 부산 여행에 나섰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고파서 자갈치 시장에 갔다. 자갈치 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해물을 보면서 우리는 군침을 질질 흘렸다. 시장 2층에 올라가서 푸짐한 해물탕을 주문했다.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파서 나머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식사를 했다. 배가 잔뜩 불러서야 수저를 놓고 서로를 보고 웃었다.

시장에서 나와서 부산국제영화제 거리와 3D미술관 관람을 하며 사진을 많이 찍었다. 볼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아서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한참을 놀다가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바다에 가자!”

우리는 날아가듯 바다로 향했다. 바다는 아주 강한 바람으로 우리를 반겼다. 나와 친구의 짧은 치마가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얇은 담요를 사서 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바다가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었다. 우리 여자들은 아직 바닷물이 차가운데도 가방과 신발과 담요까지 다 집어 던지고 바다로 돌진했다. 우리를 지켜보던 남자 선배들은 모래사장서서 멀찍이 서서 큰소리로 말했다.

“니들 다 미쳤어? 상어가 나타날지도 몰라!”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신경도 쓰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그곳에서 현란한 야경에 또 한 번 사로잡혔다. 그런데 문제는 한밤중에 발생했다. 우리가 잠을 잘 숙소를 찾아 호텔에 갔을 때 이미 해운대의 모든 호텔은 만원이었다. 심지어 모텔과 찜질방까지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우리는 해운대의 밤 거리를 무려 1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숙소를 찾아 헤맸다. 결국 새벽 두 시가 되어서 24시간 카페에 들어가 의자에서 쪽잠을 잤다.

이번 부산 여행은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있는 경험을 꽤 많이 했다. 이런 추억은 어른이 되어서도 돈보다 소중한 재산이 될 것 같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부산에 가야겠다.



» 호텔관광경영학과 1학년 송림월



내년에도 진해에서 만나요

어느 날 한국 친구가 진해의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진해에는 36만 그루의 벚나무가 있다고 했다. 벚꽃 필 무렵이면 그 모습이 아주 볼 만하다고 해서 이번 봄에는 꼭 진해에 가 보리라고 마음먹었다.

지난 4월 4일 친구와 같이 진해로 출발했다. 진해 벚꽃 축제 기간 중 필수 코스는 바로 여좌천이라고 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연분홍빛 구름다리 벚꽃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말 환상적이었다. 그러나 벚꽃보다 그 앞에서 사진 찍는 커플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건 왜 일까? 공기가 좋고 경치도 좋고 사람도 행복하니까 몸과 마음이 매우 즐거웠다.

진해는 벚꽃축제 못지않게 해군사관학교도 유명하다. 그곳은 1년에 한 번 군항제 기간에만 개방해서 그런지 관광객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사람 구경을 온 건지, 사진을 찍었더니 보이는 건 온통 시커먼 사람들 머리뿐이었다. 그래서 사진은 포기하고 눈으로만 담았다. 멋진 퍼레이드도 구경했는데 투철한 군인 정신이 절로 느껴졌다.

마지막코스는 365개의 계단을 올라야 하는 진해 전망대였는데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3분 만에 도착했다. 거기에서는 진해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근처에는 먹을거리도 많았는데 국밥이나 시원한 냉면을 먹으면 피로가 다 풀릴 것 같았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또 하나 늘었다.

여러분, 벚꽃 터널 아래서 손 꼭 잡고 로맨틱하게 산책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다음 봄에는 꼭 진해에 놀러 가 보세요! 그때는 우리 커플 사진도 찍어 주시고요.



>> 국제경영학과 3학년 시설리

또 하나 처음인 경험 '등산'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 어느덧 나도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고 곧 졸업이다. 한국에 있는 3년 동안 '처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곤 했다. 처음 부모님 곁을 떠나 이국땅에서 혼자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스키를 타 본 것, 처음으로 학교 잡지에 내 글을 발표하는 것 등.....

이제 곧 졸업인데 그 전에 또 하나 처음으로 한 경험이 있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등산'이라고 대답했다. 정말 이상한 취미라고 생각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위험하고 그다지 재미있는 운동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했는데 마침 기회가 왔다. 이번 봄에 학과에서 문화답사를 안동하회마을과 도산서원을 갔는데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주왕산에 등산할 계획이라고 했다. 졸업 전에 마지막 문화답사이고 친구들과도 헤어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용기를 내어 등산을 하기로 했다.

등산하는 아침엔 밤새 잠도 잘 못 자서 눈도 잘 떠지지 않고 귀찮은 생각도 들고 은근히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간다고 했으니 할 수 없이 나섰는데 게다가 이 교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식당에서 우리들의 도시락을 싸고 계셨다. 꼭 엄마 같은 모습이었다. 포장해 주신 도시락을 들고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이른 아침이라 산에는 우리 학과 학생들과 교수님만

계셨고 안개가 짙게 깔린 산길을 걸으면서 '내가 산꼭대기 올라갈 수 있을까? 나 혼자만 낙오자가 돼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출발한 지 10분쯤 지나니 벌써 힘들기 시작했고 점점 앞 사람을 따라갈 수 없었다. 다리도 쭈시고 땀은 주룩 주룩 떨어졌다. 아무리 걸어도 앞 사람을 따라잡지 못해서 차라리 나와 비슷한 친구와 뒤에서 천천히 걸었다. 그제서야 주왕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뭇가지 위의 새들이 재잘재잘 지저귀는 소리와 우리들의 험뎁이는 소리만 들렸다. 이 세상이 이처럼 평온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등산 출발 전의 걱정이 모두 사라졌다. 한 시간 반쯤 지나 힘겹게 정상에 도착하여 꿀맛 같은 도시락을 먹고 맥주캔을 친구들과 한모금씩 나눠 마셨는데 맥주가 그렇게 맛있고 시원한 지 처음 알았다. 정상에서 내려다 본 경치는 너무나 장관이었다. 가슴을 크게 펴고 숨을 들이 마시면서 내 마음 속에 뿌듯함과 만족감을 가득 채웠다. 드디어 내 목표 중에 하나인 '반드시 최고봉에 올라 모든 산을 한 번 내려다볼 것이다.'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등산은 5시간 쯤 걸렸다. 답사를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다리, 허리,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었지만 자연 속에서 나 자신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기에 보람과 기쁨이 훨씬 더 많았다. 이제야 최학교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내 인생에서 '처음'이란 말도 하나 더 생기게 되었다.



》 한국언어문화전공 4학년 하빙총

나의 특별한 한국 생활

2013년 8월 23일에 드디어 한국에 왔다. 모든 것이 신기해 보였다. 내가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한다는 것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현실이 되었다.

인천공항에서 대전시 우송대학교까지 학교 버스로 3시간쯤 걸렸다. 학교 버스를 탔을 때 바로 '지금 내가 진짜 한국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로 오는 내내 마음이 아주 긴장되었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2년 배웠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단어 몇 마디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어 선생님과 한국 친구들 덕분에 한국어 실력도 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익숙해졌다.

또한 나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 음식이 대부분 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다. 지금은 한국 음식을 아주 좋아할 뿐 아니라 김치를 제일 좋아하게 되었다.

지금 나는 한국에서 유학생 기숙사에 살고 있다. 기숙사는 환경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기도 해서 신청자가 많다. 기숙사에 사는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 조금 작기는 하지만 아주 편리하고 깨끗해서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또한 학교에서는 우리의 문화 체험을 위해 여러 곳을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 나는 그때 마다 참여하여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나는 한국에 온 것이 무척 잘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남은 한국 생활을 즐겁고 바쁘게 보내려고 한다.



» 호텔관광경영학과 4학년 요봉양



나의 꿈, 나의 한국

나에게 한국이란 어렸을 때의 꿈이다. 나는 한국에 오기 전에 가장 가고 싶은 곳이 한국이었다.

그때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도 굉장히 간단했다. 한국의 드라마는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 그리고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어렸을 때 한국에 가고 싶었던 이유이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나는 사춘기였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다. 그래서 유행에도 매우 민감하였는데, 한국은 바로 이 분야에서도 앞섰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 완전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나를 강한 힘으로 한국에까지 오게 만들었다.

나는 한국에 오기 전에 무엇보다 한국어 공부를 많이 했다. 왜냐하면 외국에 가면 외국어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의 예의에 대해서도 미리 많이 공부하였다.

지금 한국에서 나는 아주 마음껏 한국어와 전공을 공부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뷰티디자인학과 4학년 진산

나에게 한국이란

한국에 온 지 벌써 일곱 달이 되었다. 날마다 나는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면 자주 나 자신에게 한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는다.

한국에 오기 전에 나에게 한국은 아득히 멀고 아름다운 꿈이었다. 한국어를 잘 못했지만 늘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봤다. 좋아하는 한국 배우들 때문에 대학생 때부터 한국에 가고 싶었다. 한국 사람들이 배우들처럼 진짜 그렇게 잘생겼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공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한국에 올 기회를 얻은 날, 나는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른다.

한국에 온 후에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창구이다. 한국에 와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잘 알게 되고 직접 한국 생활을 느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전에 자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여행을 가라고 했다. 나에게 한국 생활은 여행처럼 좋은 기회이다. 나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 수 있고, 한국과 나의 모국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알 수 있다.

나에게 한국이란 미리 실현한 꿈이고 자기와 세계를 더 잘 알 수 있는 창구이다. 앞으로도 한국 생활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생활해 갈 것이다.



≫ 서적 (공자반)



언어연수

선배 인터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띄우는 한국어 편지.
언어연수 이모저모.



Interview

5월의 햇살이 무척이나 따듯했던 어느 날 우송한국어교육원에서 언어연수를 마치고 우송대에 입학한 선배 루찬선, 채장흥, 전첨 학생과 이제 막 우송한국어교육원에서 언어연수 공부를 시작한 장호, 반결, 허여몽, 이몽아 학생이 모여 즐거운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선배들의 생생한 언어연수 생활 얘기를 들으며 신입생들은 앞으로의 연수 생활에 무척이나 기대에 차 보였다.

[장호] : 선배님들은 어떻게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됐어요?

[루찬선] : 뷰티디자인 전공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전첨] : 중국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진짜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궁금해서 유학 오게 됐어요.

[허여몽] : 보통 1시에 언어연수 수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오후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채장흥] : 먼저 식사를 하고 나서 기숙사에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해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영화나 여러 한국 프로그램도 봐요.

[전첨] : 가끔씩은 친구와 쇼핑도 하고 한국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도 해요.

[반결] : 매일매일 수업을 듣다보면 공부가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비법 좀 알려 주세요.

[루찬선] :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여행이나 쇼핑이 최고잖아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수도도 많이 떨어졌어요. K-POP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됐고요.

[이몽아] : 선배님들 한국어를 참 잘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저희도 선배님들처럼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전첨] : 나는 매일 숙제를 하고 나서 예습과 복습을 꼭 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날그날 다 외우려고 노력하고요. 밖에 자주 나가 많은 한국 사람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크게 따라 말한 적도 많아요.

[채장흥] : 나도 전첨과 비슷하게 유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서는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을 많이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여러 프로그램을 적당히 보는 것도 듣기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꼭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시간이 갈수록 공부하는 데 어려워지거든요.

[장호] : 그렇구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선배님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루찬선] : 한국에서의 유학은 정말 좋은 기회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방학 때는 여행도 많이 다니도록 하세요. 여행을 하면서 한국어 말하기 능력도 키우고, 문화도 배울 수 있거든요.

[전첨] : 절대 결석하지 마세요! 결석을 하면 그 다음 수업에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F 학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깐요.^^



인터뷰 : 장호, 허여몽, 반결, 이몽아



촬영 : 장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언어연수를 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한국에 온 지 벌써 8개월이 되었다. 나는 작년 두 학기 동안에 우송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하고 이번 학기부터 우송 대학교 국제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지금 우송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우송한국어교육원에서 공부했을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어 공부만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체험 활동들이 많았다.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선생님과 같이 에버랜드에서 논 것이다.

언어 연수를 하는 후배들은 언어연수 기간에 좀 더 열심히 하

길 바란다. 대학에 오게 되면 전공수업이 어렵고 토픽 시험에서 높은 급수를 받아야 하니까 쉴 시간이 없다. 한국어에 집중할 수 있는 언어연수기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한국 유학은 정말 좋은 기회이다. 한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것만큼 한국 친구와 자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는 한국 친구와 자주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나는 한국어를 더 잘하고 한국 생활도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

≫ 선배 전침

언어연수의 매력

우송대학교의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 한국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한국에 왔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장벽에 부딪쳐서 처음부터 좌충우돌의 경험을 많이 했다. 그런 경험이 힘든 적도 있지만 지금은 모두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다. 언어연수는 그게 매력이다.

처음 발음 공부를 시작해서 간단한 어휘와 문법을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조금씩 한국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드라마 볼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아들을 수 있어서 신기했다. 이런 느낌은 한국어를 중국에서 외국어로 공부할 때와 다른 느낌

일 것이다.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말들을 배워나가는 일은 하루하루가 새롭고 신기한 일이 된다.

모든 공부는 쉽지 않고 인내심을 필요로 하지만 즐거워서, 필요해서 하는 공부는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쉬울 거라고 생각한다.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처음부터 필요한 단어들과 말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좌충우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공부하는 언어연수는 분명 재미있는 한국어 공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선배 루찬선, 채장홍

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띄우는 한국어 편지>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게

안녕, 그 동안 잘 지냈니? 벌써 한국에 온 지 2달이 됐어. 나 보고 싶지 않아? 나 여기에서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처음 왔을 때 많이 방황했는데 이제 즐겁게 지내고 점점 익숙해졌어.

예쁘장하고 친한 한국어 선생님 계시는데 그 분은 수업할 때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리액션도 크게 하시고 활기차고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어. 친구들도 도움을 많이 줘서 내 한국어능력이 점점 늘고 있어. 수업 시간이 끝나면 친구랑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밖에서 한국 사람과 적극적으로 얘기를 통해 한국어 수준을 높이고 있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불고기, 깍두기하고 해장국이야. 너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나는 너무 매워서 잘 먹지 못해.

지난달에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 민속촌에 가봤어. 거기에서 한국전통 활쏘기도 체험하고 한국전통결혼식도 구경했어. 민속촌에서 많은 드라마를 찍었다고 들었어. 예를 들어서 《해를 품은 달》, 《성균관 스캔들》, 《일지매》, 《황진이》 등등. 너는 본 적이 있어?

나는 친구와 같이 KTX 타고 서울도 갔어. 명동 롯데백화점에서 화장품도 사고 여러 가지 음식도 먹었어. 만약에 한국에 오면 같이 놀고 한국문화도 체험하고 음식도 많이 먹자. 내가 다 사 줄게. 방학이 되면 귀국할 거야! 기대해! 정말 빨리 만나고 싶다!

2014. 4. 25 너를 사랑하는 친구 로미사가



사랑하는 내 친구 로미사에게

너에게 편지가 와서 정말 기뻐. 너의 유학생생활이 좋다고 들어서 기분이 정말 좋아.

작년에 네가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한 기억이 있어. 그때 내가 많이 걱정했어. 한국 날씨에 적응할 수 있을지.

한국의 음식이 입이 맞을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이나 공부 환경이 좋을지 모두 다 걱정했어. 미

사, 너 혼자 생소한 나라에 가는 것에 용기도 있어야 하고 확고한 신념도 있어야 하잖아.

나의 사랑하는 친구 미사야 이 모든 것이 너에게는 있었어. 달력을 보고 나서 네 방학이, 중국에 올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 나는 '새로운 너'를 만나는 것을 정말 기대해.

2014. 4. 26 미사를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엄마^^

요즘 잘 지내셨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세 달이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불편했던 것은 김치 먹는 것이예요. 하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김치가 없는 경우 더 불편해요.

맨 첫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할 때는 교수님들이 우리를 데리고 민속촌에 갔었어요. 그리고 한국 정통 결혼식을 봤는데 너무 예뻐요. 기회가 있으면 저도 입으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친구랑 같이 예쁜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참 기뻐요.

한국에 온 지 두 달 후에 우리는 한복을 입는 체험을 했어요. 제가 입은 그 한복은 바로 옛날 조선시대 중전마마가 입은 그 옷이에요.

지금은 우리 학교 연휴기간이에요. 시간이 많아서 친구랑 같이 부산에 갔다 왔어요. 부산의 바다가 참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연휴기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기회가 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전 한국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어요. 부모님 제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

2014년 5월 13일 이몽아 올림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우리 사랑하는 딸이 이제 다 컸네. 이메일 받았을 때 엄마는 너무 기뻐요. 벌써 세 달이 지났네. 엄마 아빠도 우리 몽아 보고 싶어.

그러고 보니, 한국음식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엄마가 간단한 조리식품 같은 거라도 보내 줄까? 아니면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엄마가 보내 줄게. 그리고 힘든 것이 있으면 주위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런 부분이 힘들다고 말해줘. 엄마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 줄 테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로 수업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런 우리 딸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수업을 못 따라가도 자신감을 잃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 문화에 맞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적응해서 지내야 해.

그리고 가끔씩 통화를 하더라도 엄마는 네가 걱정된다. 그러니까 전화 자주 하고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이나 맛있는 음식 같은 것 엄마한테 자랑도 하고 ~~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해야 돼. 우리 몽아 잘 할 거라고 믿어. 우리 몽아 파이팅 사랑해.

2014년 5월 14일 엄마가



<언어연수 이모저모>

한국 민속촌 나들이, 봄을 만끽하고 오다!

2014년 3월 26일 우송대학교 언어연수 학생 36명이 한국 민속촌으로 문화체험을 다녀왔다. 출발할 때는 아스한 봄비로 다소 어두운 분위기였지만 민속촌에 도착하자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화창해진 날씨 덕분에 민속촌의 정취를 더 만끽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만 봐 오던 한국의 전통 의식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 보고 맛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체험기 - 한국 민속촌으로 문화체험을 다녀와서

우리는 선생님과 같이 한국 민속촌에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왔다. 학교 버스를 타고 한 시간 반쯤 걸렸다. 도착한 후에 우리는 활쏘기 체험을 했다. 그런데 내가 잘 못해서 팔이 너무 아팠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한국 전통 결혼식도 봤다. 한국 전통 결혼식과 중국 전통 결혼식은 비슷했지만 예절이 다르고 옷이 더 예쁘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같이 해물파전을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밥을 먹은 후에 우리는 자유 시간을 가졌다. ...후략...

》반결

언어연수 - 취미반

우송한국어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이 1시에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오후 시간을 조금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미반 개설을 하였다. 취미반의 시작은 한국의 의복 체험인 한복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역사 드라마에서만 보던 각양각색의 화려하고 멋있는 한복도 입어 보고, 한국의 예절도 배워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우리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 연수 1반



◀ 연수 3반



◀ 연수 5반



◀ 연수 2반



◀ 연수 4반

essay 2

일상 속의 나

안녕하세요?

중국 뷰티센터 대표 임방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뷰티센터 대표 임방혜입니다. 우리 뷰티센터는 헤어스타일부터 화장까지 여성의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 화장품 개발로 화장품계의 샹젤레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중한 무역을 통해 세계적인 회사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우송대학교에서의 유학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뷰티학과라는 특성상 매일 과제에 시달려야 했고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전공수업 듣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전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부터 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어능력시험과 메이크업 고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과 무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저의 유창한 한국어 실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상은 저의 10년 후, 모 방송국과의 인터뷰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10년 후 저의 모습을 상상하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뷰티디자인학과 4학년 임방혜



후회 없는 삶이 성공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이 있다. 나는 매일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없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전에 나는 후회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내 성격은 게으름 뿐만 아니라 느긋한 탓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에 온 뒤에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학교에도 일찍 온다. 내가 이렇게 달라진 데에는 어머니와 선생님께서 나에게 대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한국에 와서는 언어와 음식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고 싶기도 했지만 여러 선생님의 도움으로 점점 익숙해졌다.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마 시간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선생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성공을 위해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앞으로도 매일 낙관적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물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 국제경영학과 4학년 잔휴빈

유학 생활 성공기

나는 한국에 온 후에 하고 싶은 일이 아주 많다.

첫째, 살을 빼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날씬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나는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다. 심지어 외출도 싫어했다. 나의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가끔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난 예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살을 꼭 뺄 것이다.

둘째,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그런데 살을 뺄 후에 할 일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셋째, 많은 한국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다. 한국 사람과 친해지면 한국어도 잘할 수 있고 한국에 적응하기도 쉬워질 것이다. 또한 한국 친구가 중국에 오면 나도 한국 친구와 함께 있어주고 돌봐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유학 생활 중 꼭 하고 싶은 일은 연애이다.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밤에 산책도 할 수 있는 남자친구를 꼭 찾고 싶다.

이 네 가지 일을 다 이룰 수 있으면 나의 유학 생활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 국제경영학과 2학년 허성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듯이 성공하려면 실패를 많이 겪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실패를 많이 할지언정 넘어지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성공의 표준은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돈을 불법적으로 얻으면 또 다른 의미가 된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불명예스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은 많지만 이웃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바른 태도로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당장은 성공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꼭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좌절을 극복하면 반드시 큰 재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실패의 경험은 다 인생의 소장품이다. 계속 노력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미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실패를 해도 인생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여러 좌절을 통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 방송시스템학부 4학년 원효운

미래의 사업가 당빈안의 한국 유학 생활

지금 나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다. 내 꿈은 뛰어난 사업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경영을 전공하고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유학 생활에서도 꼭 성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려면 우선 나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정보에 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경영학 공부도 열심히 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나는 꼭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싶다. 우등으로 졸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공부에 도움도 받고 한국문화도 배울 겸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한국 친구들 덕분에 전공 공부도 좀 쉬워졌고 유학 생활도 많이 익숙해졌다.

나는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 경기와 시장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이다음에 이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지금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만이 내 꿈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국제경영학과 4학년 당빈안



사람마다 후회하는 일이 있기 마련이다. 나도 마찬가지인데, 내 인생 중 제일 후회하는 일은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어드리지 못한 일이다.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나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나를 무척 사랑하신다. 그런데 외할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못 뵈어서 너무 후회가 된다.

나는 태어났을 때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부모님은 너무 바빠서 나를 외할머니 댁에 보내셨다. 만 1살 무렵 나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계속 울었다고 한다. 그때 외할머니께서는 며칠을 잠도 주무시지 않고 밤새 나를 안고 계셨다고 한다. 나는 이 같은 사랑을 중학교 다니기 전까지 듬뿍 받고 자랐다.

외할머니, 사랑합니다!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사는 동안 참 재미있고 행복했었다. 아침마다 외할머니께서 만드신 계란찌개를 꼭 먹고 나서야 학교에 가곤 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기 전에는 외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꼭 들어야 잠이 들곤 했다. 외할머니께서는 내게 노래도 가르쳐주셨다. 우리는 항상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산책을 했다.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던 행복한 시간으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우리 착한 외할머니,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 뷰티디자인학과 4학년 역만정

김 선생님과 기쁜 하루!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었다. 그동안 어려운 일도 적지 않았지만 아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나에게 아주 기쁜 하루를 말하라고 하면 김 선생님과 하루를 말하고 싶다.

지난 연휴 때, 나와 다른 4명의 친구들은 남경에서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던 김 선생님을 만났다. 그날은 날씨가 매우 상쾌해서 기분까지 좋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2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김 선생님은 더 예뻐지셨다. 얼굴도 작아지고 살도 쏙 빠지고, 아마 다이어트를 하신 것 같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우리는 금방 조금의 어색함도 없이 수다를 떨었다.

김 선생님과 같이 밥도 먹고, 공원도 가고, 노래방도 갔다. 남경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노래방에 갔을 때, 김 선생님은 사장님께 서비스를 많이 달라고 했다. 사장님은 김 선생님의 애교에 넘어가 거의 한 시간이 넘는 서비

스를 줬다. 우리는 그 노래방 사장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실컷 한국노래며 중국노래, 팝송 등을 불렀다.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노래로 다 날려 보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나올 때 사장님은 우리에게 “다음에 또 우리 노래방을 이용해야 해.”라고 소리치셨다.

김 선생님과 함께 기쁘게 지낸 이날! 김 선생님과 헤어질 때 우리도 김 선생님께 이렇게 소리쳤다. “다음에 또 저희를 만나러 오셔야 해요! 약속하셔요.”



≫ 호텔관광경영학과 4학년 하나나



귀신, 어디가? 가지 마, 같이 가!

여러분은 귀신을 본 적이 있는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모두 진실이니까 믿어도 된다. 나는 어렸을 때 라면을 아주 좋아해서 매일 먹는 음식 중의 하나였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밤이었다. 중국에서는 보통 비가 오면 집 안에서 마작이나 트럼프 놀이를 하는 관습이 있다. 우리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모님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나는 습관적으로 배가 고파졌고 라면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마침 라면이 다 떨어져서 다시 사와야 했다.

맛있는 라면을 먹을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런데 분명히 나갈 때만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돌아올 때는 느낌이 달랐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 지더니 이상한 형체가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 모습은 눈, 코, 입도 없고 다리도 없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앗, 귀신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너무 놀란 나머지 계단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아찔한 사고였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귀신이 더 무서웠기에 눈을 감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한가로이 마작을 즐기던 우리 부모님들이 뛰어나오셨고 부들 부들 떨고 있는 나를 안고 들어가셨다.

평소에 미신을 믿고 계신 할머니께서 자초지종을 들으신 후 유명한 무당을 불러 오셨다.

“아이고, 충상이가 저승사자를 봤군요.”

그렇다 일곱 살 꼬마 아이는 무서운 저승사자를 만났던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 아파트 1층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셨다.

사실, 이 작문은 한국어쓰기 시간에 한 것이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 몸이 마비된 것처럼 떨리지만 친구들은 이 내용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작문의 제목을 붙여 볼까요?”

내가 지은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신 선생님께서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친구들은 다양한 제목을 이야기했다. ‘귀신, 어디가?’, ‘귀신, 가지 마.’, ‘귀신, 같이 가’ 등등. 선생님께서는 그 제목을 들으시더니 ‘귀신, 어디가? 가지 마, 같이 가!’라는 제목이 좋다고 해서 친구들은 깔깔깔 웃고 난리가 났다. 결국 원래 제목이었던 ‘귀신을 본 경험’에서 이렇게 바뀐 것이다.



》》 국제경영 1학년 허충상

밤을 잊은 나

나에게는 몸쓸 고질병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자주 밤잠을 안 자고 밤에 일을 하고 노느라 밤새기를 하는 것이다. 공부를 하느라 안 잔다면 지금은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학생이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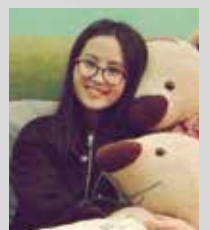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밤이 되면 정신은 더 생생하게 돌아오고 눈은 말뚱말뚱해진다.

불면증이 아닌가 할 정도로 걱정이 된다.

잠을 안 자니까 낮에는 눈이 항상 충혈 되어 있고 피부도 나빠지니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어디가 고장 나서 아픈 사람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다. 얼굴에는 항상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고 맥이 없이 낮을 보낼 때가 부지기수다. 버스에서 조느라 정류장을 지나친 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자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원망하게 되고 자괴감이 들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불면증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다. “아! 저거는 내 얘기구나” 생각했다.

그 방법은 먼저 낮에 몸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이 피곤하니까 당연히 잠을 자게 될 것이다. 둘째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과제는 낮에 미리미리 해 놓고 밤에까지 미루지 말자.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한국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구한다”라는 말이 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해야 성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간단하고 사소한 진리를 이제부터 실천해 볼 생각이다. 이제부터는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족이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는 아침형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여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 이른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마셔봐야겠다.



》》 정보대 유아교육과 2학년 도개리

사하 공화국을 아십니까?

저는 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온 교환학생입니다.
저는 러시아에 있는 나의 고향 사하 공화국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하 공화국의 수도는 야쿠츠크라고 합니다. 나의 공화국은 한국보다 30배 큼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땅에 사는 인구는 한국의 인구보다 50배 적은 백만명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 공화국에는 러시아로부터 독립된 우리의 대통령, 헌법, 국기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 사하에 오면 색다른 러시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긴 강인 레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다이아몬드, 석탄, 석유, 가스, 금 등 지하자원이 많고 동토지대에 원형이 보전된 메머드가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화국은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겨울이 길고 아주 춥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추울 때 영하 72도를 기록한 일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입니다. 물을 밖에 뿌리면 바로 얼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나의 공화국은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 사람들은 추운 날씨와는 반대로 한국사람들과 같이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올겨울 세계에서 극한의 추위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저의 고향 사하에 놀러 오세요~



>> 솔브릿지 크리스티나

내가 사랑하는 대학교 “솔브릿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흐마돌로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학교와 이곳의 재미있는 생활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는 한국의 대전에 있는 솔브릿지입니다.

솔브릿지는 국제대학교라서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본에서 온 학생들이 많고 또 아라비아에서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교수님들도 여러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정말 다국적입니다.

교수님들은 수업을 영어로 하십니다. 솔브릿지에 계신 모든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잘 설명해주십니다. 그 중 가장 재미있는 수업은 한국어 수업입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천천히 잘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결석을 하지 않습니다.

솔브릿지에서 모든 학생들은 거의 영어로 이야기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한국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한국생활이 더욱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솔브릿지 대학교에서는 매년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또 솔브릿지 안에는 좋은 장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 헬스 클럽에 가서 운동도 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 대학교의 기숙사인 솔지오에서 한국 친구와 같이 삽니다. 제 방 친구는 아주 친절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좋아해서 솔브릿지에 있는 한국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말로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친구들과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매우 행복합니다.

저는 솔브릿지 국제대학교가 참 마음에 듭니다.

사랑해요, 솔브릿지... ..



» 솔브릿지 아흐마돌로



새로운 TOPIK이 보인다

드디어, 새로운 유형의 한국어능력시험(토픽, TOPIK)이 올해 7월 (35회)부터 시행된다. ‘드디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현재 토픽은 한국어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다. 둘째 이번 개편의 폭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번 개편에 한국어 학습자와 교육기관 관계자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토픽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토픽을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내용(예제와 안내 사항)을 바탕으로 변경된 주요 내용들을 살피고 그에 대한 대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쉽지만 지면 관계상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능력시험Ⅱ만을 분석 대상으로 했음을 밝힌다.



1. 평가 영역의 축소 : 이해 능력 평가 중심으로 변화

새로운 유형의 토픽(이하 신토픽)에서는 어휘·문법이 빠져 듣기, 쓰기, 읽기만을 평가한다. 대신 기존의 어휘·문법 문제와 유사한 4개의 문제가 읽기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기존 토픽이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을 각각 2개의 영역으로 고르게 평가한 반면 신토픽에서는 표현 능력은 1개 영역(쓰기)으로 이해 능력은 2개 영역(듣기, 읽기)으로 평가한다. 즉 표현보다는 이해 능력 평가 중심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2. 중·고급의 통합과 문항 개수의 변화

기존 토픽에서는 중급과 고급을 분리해 시험을 시행한 것과는 달리 신토픽에서는 중급과 고급이 통합된 한국어능력 시험Ⅱ로 응시자의 한국어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의 개수는 듣기와 읽기 모두 30문제에서 50문제로 증가하였고 쓰기는 14~15문제가 4문제로 조정되었다. 신토픽이 중급 학습자에게 유리할지 고급 학습자에게 유리할지는 정식 시험이 몇 차례 시행되어야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급 학습자나 고급 학습자 모두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시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한국어능력시험Ⅱ 관련 개략 정보〉

영역	문제의 개수	배점	시험 시간(분)	비고
듣기	50	2점	60	1교시
쓰기	4	10점(2), 30점(1), 50점(1)	50	
읽기	50	2점	70	2교시

〈표2 한국어능력시험Ⅱ 문항 수준〉

영역	3급	4급	5급	6급	7급
듣기	12	13	12	13	50
쓰기	3		1		4
읽기	12	13	12	13	50

3. 문항 유형의 변화

신토픽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살펴볼 부분은 바로 문항 유형의 변화이다. 듣기와 읽기는 기존 토픽과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한 부분이 거의 없다. 반면 쓰기는 객관식 문항이 모두 사라지고 4개의 문제 모두 주관식으로 채워졌다. 긴 작문 쓰기인 4번째 문제는 기존 토픽의 작문 문제와 유사하지만 1~3번째까지의 문제는 이전 토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이다. 1번과 2번 문제는 비슷한 유형으로 전체 담화 맥락에 맞는 문장을 써 넣는 문제이다. 3번은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제에 맞는 글을 쓰는 유형의 문제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1번과 3번 문제를 아래에 제시한다.

※ [51~52] 다음을 읽고 ()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씩으로 쓰십시오.

51.

초대합니다.
한 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집안 정리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 (㉡)? 그 시간이 괜찮으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3] 다음 표를 보고 인터넷의 장단점에 대해 쓰고, 인터넷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0~300자로 쓰십시오.

인터넷의 장단점	
인터넷의 장점	인터넷의 단점
①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① 믿을 수 없는 거짓 정보가 많다.
② 언제든지 쇼핑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에 중독이 될 수 있다.

4. 기타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신토픽에서 달라진 점으로 과락이 없어진 것, 등급별 점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매회 시험이 끝난 후 공개한다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과락이 없어졌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 약점이 있는 응시자도 다른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기존 토픽에 비해서 높은 등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으나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5. 신토픽 대비 방안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유형의 토픽은 이전의 토픽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신토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심할 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픽 홈페이지에 들어가 새로운 유형의 토픽 문제를 확인하고 그 유형에 맞는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일단 읽기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의 수가 많아진 것에 비해 시간은 별로 길어지지 않았으니 빠른 시간에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읽기와 듣기 모두 문제가 많아졌으니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평소에 집중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토픽 시험이 이해 능력 평가 중심으로 바뀌었으니 담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어휘와 한국적인 담화 구조를 익히는 것 위주로 학습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쓰기는 새로운 문제 유형에 맞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변화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 새로운 토픽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차분히 준비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의 모든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토픽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로 글을 맺는다.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 편집부

제3회 한국어·중국어 말하기 능력 강화 프로그램

우송대, 살아있는 말하기활동 현장 리포트



〈3월 13일 OT 및 자기소개〉

2014년 3월 13일 제3회 한국어·중국어 말하기 활동이 시작됐다. 본 활동은 한국어 회화에 수강중인 유학생 52명과 글로벌듀얼 디그리 학부 중국어 전공자 50명이 한국어와 중국어 말하기 활동을 통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설된 강좌이다. 외국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그룹은 한 학기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목표어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정을 나누었는데 다음은 그들이 수행한 생생한 과제의 일부분이다.

유학생 회화 5반 / 중국어학과 1학년(말하기 활동 풍경)

3월 13일 첫 만남을 가진 학생들은 '사남사녀, 팔방미인, 팔인팔색, 훈남훈녀, 일석이조' 등 다섯 팀으로 나누어서 3월 20일 첫 번째 과제 '조원 리포트'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조원들 간 서먹함을 해소하고 한 학기동안의 파이팅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3월 27일 음식>

조원 리포트를 통해 한층 가까워진 학생들은 3월 27일 음식 체험을 다녀왔다. 음식 체험은 찬샘 마을에서 진행되었는데 떡볶이와 그룹별로 준비한 개별 메뉴를 하면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학습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떡볶이 외에도 샤브샤브, 볶음밥, 파전, 바나나 맛탕, 주먹밥 등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체험한 내용을 UCC와 PPT를 만들어 발표회도 가졌다.



<5월 1일 직장>

세 번째 주제는 '직장'이었는데 미래의 목표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졸업 후 진로, 남은 대학 생활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 등을 정리하고 동료들 앞에서 발표함으로써 결심을 다졌다. '항공사 직원, 화장품 회사 직원, 대학원 진학, 뷰티센터 사장' 등 꿈은 다양했지만 미래에 대한 열정과 희망은 하나같이 불타올랐다.



<5월 15 비전 세우기>

직장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목표를 확고히 한 학생들은 5월 15일 개인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 꿈을 이루기보다는 국가와 세계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비전 명함 만들기를 했다. 또한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우정을 나눈 친구들에게 축복의 말을 나누는 롤링페이퍼 작성의 시간도 가졌다.

유학생 회화 6반 / 글로벌듀얼디글리스학부 2학년 A반이 만든 '내가 살고 싶은 집'



녹색청춘



우공이산



빠빠빠빠



바닷바람

- 녹색청춘 : 지하 수영장과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 집! 빌게이츠 집이 부럽지 않겠조?
- 우공이산 : 신혼부부의 행복이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집!
- 빠빠빠빠 :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집! 담을 허물고 하나가 돼 보자고요.
- 바닷바람 : 힐링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만든 '자연 속의 집'으로 오세요!

유학생 회화 7반 / 글로벌듀얼디글리스학부 2학년 B반 팔방미인 팀이 만든 '미래의 옷'



어떤 옷을 만들까?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옷, 그래 바로 그거야!



박스,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쓱쓱쓱쓱
우리 팀 협동심도 쓱쓱!



갑옷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군들도 모두 전멸시키겠다!



쓱스럽지만 멋진 발표!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렇게 102명의 학생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어를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강화시킬 수 있었다. 학생들은 과제수행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만남을 갖고 밤새워 ppt를 작성하고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했다.

• 유학생

진전전 : 제 성격이 밝아지고 발음도 좋아졌습니다.

양서상 : 무엇보다 제 미래 목표를 세웠다는 것과 가족처럼 친한 팀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서효명 :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정말 좋았어요.

• 한국 학생

이혜수 : 평소 중국인 친구들과 얘기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실컷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인서 : 대학생활 전부터 꿈꿔오던 중국인 유학생과의 교류를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서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윈-윈했습니다.

정현진 : 중국 친구들과 경험을 쌓고 중국어 실력을 높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송민지 : 처음에는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 수업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렘니다. 특히 중국 친구들에게 직접 배우는 중국어는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대전에서 우리들이 찾아 갈만한 대표적인 장소는 어디일까?

동구 즐기기



젊은 우리들은 화려하고 활기 넘치는 도심의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은행동 구도심이나 둔산동 신도심을 찾는다. 처음 한국에 와서 학교에서 가까운 은행동을 자주 가다가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로 발길을 돌리는 게 레퍼토리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것도 한 두 계절이 지나면 식상해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젠 서울이나 부산처럼 큰 도시나, 대전 근교의 도시, 관광지로 발걸음을 돌린다. 그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매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냥 주마간산(달리는 말 위에서 산을 보듯 대충 훑어보는) 식의 관광을 하고 정말 그 장소를 제대로 즐겼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실감할 때, 비로소 그 장소의 매력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편집부는 우리 주변의 장소들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었다. 그 중에 가장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장소는 중양시장과 하늘공원이었다.



중앙시장

중앙시장은 우리 학교에서 걸어서 20여분 거리에 있다. 학교 정문에서 출발해서 대동 지하철역을 지나 솔베스티안 병원 앞 벤치에서 잠시 맘을 식히고 5분쯤 더 걸으니 중앙시장의 한 입구에 들어 설 수 있었다.

중앙시장의 정문은 대전역 건너편 도로에 있지만 원동에 거미줄처럼 넓게 펼쳐져 있어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우리가 들어간 방향은 지금은 철거예정인 여인숙 골목에서부터였다. 아기자기한 상점이며 이발소, 세탁소 등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을 잠시 걷자 곧바로 복잡한 시장이 나타났다. 조용한 골목 입구와 달리 시장은 활력이 넘쳤다. 갖가지 채소와 생선, 고기, 과일, 생활필수품들이 주인들 마음대로 전시되고 있어 조금은 복잡하지만 그런 다양성 속에서 에너지들이 느껴졌다.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의외로 친절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시장의 아주머니, 아저씨들에게 이것저것 물건의 이름이나



가격을 물어보았는데 모두들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사진을 찍으면 일부러 재미있는 포즈를 취해주거나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도 했다.

대전역 앞 큰 도로를 건너서 원래의 중앙시장에 들어서자 좀 더 상점들이 잘 갖춰져 있었고 길거리 음식을 파는 곳도 많았다. 팔죽, 국수, 팔이 들어있는 풀빵과 주인들이 직접 만드는 어묵집이 있고 떡집과 한국 전통과자를 파는 집도 있었다. 여러 가지 전을 부쳐서 파는 집들은 고소한 냄새로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었다. 우리는 결국 설탕을 듬뿍 바른 파배기 튀김과 노란색의 호떡, 그리고 옥수수 튀밥 속에 넣어주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등을 사서 먹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먹다 보니 배가 불러서 맛있어 보이는 수제 햄버거와 핫도그는 아쉽게도 맛을 볼 수 없었다.

시장을 빠져나오자 맑은 대전천이 흐르고 있었다. 나무로 멋지게 만들어진 중교를 건너면 으능정이 거리로 가서 젊은 쇼핑족들과 만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는 식사해진 으능정이 거리로 가지 않고 중교 밑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를 따라 갔다.

거리의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 우리는 즐거운 한때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하늘 공원

우송대학교 정문에서 동캠퍼스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자양동 성당 쪽으로 들어서면 대동 가파른 경사에 오래된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곳을 볼 수 있다. 원래 이곳은 6.25 동란을 피해 대전으로 온 가난한 피난민들이 모여들면서 만들어진 동네라고 한다. 그런데 이곳이 그냥 가난한 슬럼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준다. 그 이유는 가난과 고통의 과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70~80년대 모습이 남아 있는 골목길을 지나면 잘 단장된 하늘공원 입구가 나타난다. 산책로로도 아주 좋은 곳이었다. 계단을 타고 아기자기한 바위산을 오르다보면 좌우로 대전의 모습이 보였다. 하늘 공원 정상에는 예전에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던 바위라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연애바위가 있다. 새로운 풍속은 이곳에 와서 애인과 사진을 찍고 사랑 변치 말자고 펜스에 열쇠를 달기도 한다.



다시 산책로를 좀 더 걸으면 예쁜 풍차가 있는 제법 넓은 평지가 나온다. 여기에서 보는 대전의 경치도 꽤 멋이 있다. 특히 요즘처럼 덥지도 춥지도 않을 때는 김밥을 싸서 소풍을 오기 좋은 곳이었다. 우리가 갔을 때도, 많은 젊은 커플들이 사진을 찍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도 많았다. 우리는 한참 기분 좋은 봄바람을 맞다가 새롭게 단장한 골목길로 내려왔다. 공원 아래의 축대에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하여 예쁜 그림들을 많이 그려 놓았다.

우리 유학생들도 지나치게 도시화되고 상업적인 장소를 찾기보다는 한국인의 삶과 역사가 살아 있는 곳을 찾아 폭넓게 한국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안녕 편집부는 그런 곳으로 중앙시장과 하늘공원을 강력히 추천한다.

» 편집부



제10회 외국어경시대회 한국어 부문 입상자 국내 문화탐방 보고서

유학생, 한국을 가슴으로 품다 !



제10회 외국어경시대회 ‘한국어부문’ 입상자 18명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12월 14일까지 3박 4일 동안 순천, 여수, 제주도 등을 경유하는 국내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탐방에 그치지 않고 세 조로 나누어 주제를 선정하고 탐색하기로 했다.



한국인의 한국 사랑

우리는 이번 여행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를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한국 사랑을 느꼈다.

옛 사람들의 전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첫 여행지였던 낙안읍성이다. 낙안읍성은 현존하는 조선 시대의 읍성들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서 성 안에는 아직도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는 낙안읍성의 가옥뿐만 아니라 잘 보존되어 있는 옛 풍속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한국인의 문화 전승의식에 감동 받았다. 또한 그곳에서 먹은 전통 한과와 춘향을 생각하면서 뛰었던 그네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낙안읍성이 한국인의 전통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면 순천만은 한국인의 자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순천만은 세계5대 연안습지이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유일의 온전한 습지라고 한다. 오후 늦게야 도착한 우리를 천연기념물 흑두루미와 끝없이 펼쳐진 갈대숲이 환영해 주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풍경은 일몰 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물든 갈대숲과 강 위에 드리워진 석양의 조화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하마터면 간척사업으로 사라질 뻔 했다고 하니 새삼 자연을 사랑하는 한국인의 의지가 부럽기도 했다. 순천만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한다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중한 교훈을 준 곳이었다.

우리의 가슴을 제일 설레게 했던 곳은 바로 제주도였는데 제주 아말로 성산일출봉, 에코랜드, 섭지코지 같은 아름다운 풍경과 성읍 민속 마을, 민속촌, 민속박물관 같은 전통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 민속마을은 제주도의 전통과 풍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있었다. 우리를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 바로 돌하르방이었는데 아들을 낳고 싶으면 코를 만지고, 딸을 낳고 싶으면 귀를 만진다고 한다. 우리는 너무나 할 것 없이 코와 귀를 만지면서 맘껏 웃었다. '왕바리, 비바리, 도새기' 등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제주도 사투리도 무척 재미있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를 인솔해 주신 교수님 중 유일하게 결혼한 남자 교수님의 별명은 왕바리가 되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제주민속박물관이었는데 그곳은 제주도의 전통문화와 민속자료를 총 정리하여 만든 박물관이다. 특히 제주인의 생생한 생활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용품, 농기구, 어구, 가구, 석기 등이 친근하게 다가왔다. 우리는 그렇게 소소한 제주문화에 흠뻑 빠져들어 갔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더 이해하게 된 것 못지않게 한국인의 한국 사랑을 체험한 것이 큰 소득이라고 본다. 지금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문화 전승에 대한 의식이 한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체험을 계기로 중국에 돌아가면 사라지고 있는 중국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다짐하였다.

>> 채홍, 왕치원, 악완완, 마천채, 황억동, 왕선



베트남과 중국을 이어준 한국

중국 유학생들로만 구성된 다른 팀들과는 달리 우리 팀은 중국 유학생과 베트남 유학생이 섞여 있어서 어떻게 하면 즐거운 여행이 될까 고민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단순했다. 바로 이번 여행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의 우정을 나누자'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우리의 좌충우돌 우정 나누기 여행을 함께 해 보자.



처음부터 시끌벅적 떠들며 대는 다른 팀들과는 달리 낙담음성을 거쳐 순천에 도착할 때까지 쭉쭉쭉 얘기 못 건넸던 우리 팀! 식사 후, 어색한 웃음으로 사진을 찍다.

순천만에 도착했지만 외로운 베트남 남자 수안 남 씨는 쓸쓸하게 창밖의 갈대숲을 바라보기만 했다.
“갈대야, 너는 내 마음 알지?”



베트남 남자 잔 휴빈, 여수에서의 첫날밤 드디어 일낸다!

호텔에 짐을 풀고 즐거운 모임을 가졌는데 잔 휴빈이 중국어, 한국어를 섞어가며 호탕한 웃음을 준 덕분에 중국 친구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다. 우리의 휴빈 씨, 이날 밤부터 ‘베트남 왕자’로 불리게 되다!

구름다리를 지나 도착한 천지연 폭포! 이제는 중국 친구와 베트남 친구가 하나가 되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
“우송대학교 학생들이 중국어 대회에서 상 타서 제주도에 왔나요?”
와우! 우리의 뛰어난 한국어 실력 덕분에 한국 학생으로 착각한 것이다. 역시 우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우승자들이야! 어깨도 으쓱으쓱!



이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베트남과 중국 친구들이 함께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어 갔다. 우리는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것이며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정을 이어갈 것이다. 고맙다! 한국, 사랑한다! 우송

》 장동동, 하소망, 두신신, 편수안남, 잔휴빈



낭만을 찾는 사람들



“어떡하지 하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다니!”

며칠 째 맑은 하늘을 보여주었던 날씨가 우리의 여행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세찬 바람과 눈보라를 몰고 왔다. 그러나 창문 밖으로 뿌려지는 눈송이가 하도 예뻐서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게다가 남쪽으로 갈수록 산뜻한 해가 빙그레 얼굴을 내밀었다. 앞자리에 앉으신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하셨다.

“애들아, 너희들이 정말 운이 좋은 아이들인가 봐. 지금 대전에는 눈이 엄청 많이 온대. 그런데 너희들이 가는 곳은 눈이 그치고 있네.”

그렇게 운이 좋은 우리들의 낭만 여행은 시작되었다. 우리 팀의 특징은 모두 문학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발길 닿는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냥 맡기기로 했다.



드디어 첫 여행지인 낙안읍성에 도착했다. 성읍을 지켜주는 수호신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전설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소원을 생각하며 수호신에 손을 얹었다. 대나무 숲에서 솔솔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오솔길을 걷다보니 자연

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은 착각과 함께 언어의 연금술사 같은 시인이 되었다.

아름다운 낙조와 문학의 향기가 깊이 스며있는 ‘순천’, 이곳에 오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흑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갈매가 자유롭게 날고 있는 그곳은 가히 새들의 천국이었다. 순천만은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때문인지 모르지만 한국의 유명한 문학가를 배출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무진기행>의 김승옥, <오세암>의 정채봉 선생님이 바로 그분들이다. 무진교에서 바라 본 순천만은 작가들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제주도’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였다. 민속박물관에서 한 많은 해녀들의 삶을, 에코랜드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국제평화센터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위인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은 제주에 매혹되고 있었다. 우리의 가슴을 가장 시원하게 해 준 곳은 바로 성산일출봉이었다.

정상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제주시가 한눈에 보일뿐만 아니라 굽이굽이 펼쳐진 자연의 장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생각했다.

‘인간도 자연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행은 이렇게 모두를 자연인으로 만드는 마술사인가 보다. 좋은 친구들,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여행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었다. 우리 낭만 여행객들은 이 추억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 서림석, 주효비, 등력방, 오정, 양운, 호원



터줏대감



한국에서 유학생활동을 오래한 선배들,
또는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졸업 선배들이 전하는 이야기

졸업생 염백초에게 한국이란?

毕业生闫百超印象中的韩国

휴대폰 벨이 울린다. 국제전화라고 뜬다. 요즘 보이스 피싱이 설
치다보니 모르는 국제전화를 받기가 참 그렇다. 몇 번 망설이다
가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사무실 전화로 누군가 나를
찾는다. 염백초다. 2010년 졸업생인데 해마다 5월이면 한국에 와
잠시 머물면서 학생 때 자신을 가르쳐 준 선생님들께 인사를 하
고 가는 키 큰 남학생이다. 아니지, 졸업을 하고 이제는 어엿이
중국 청도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는 키 큰 아저씨다.

电话铃声响了...“国际来电”四个大字闪烁在手机屏幕上。最近诈骗电话猖獗，看到“国际来电”的字样真是让人不战而栗。有一天，办公室的电话响了，是闫百超的来电。他毕业于2010年，个子高高的他，每年5月都会来韩国待一段时间。在此期间他会回到母校看望曾经教过他的老师们。而现在的他已是在中国青岛广播局工作着的一名堂堂正正的“大叔”了！

나의 일상이 바쁘다보니 함께 있어주지도 못하고 잠시 짬을 내 식사를 하는 게 고작이다. 멀리서 찾아와 주는 게 한편 고맙고, 잘해주지 못하는 게 한편 미안하고 그렇다. 내가 이런 말을 내비치면 “선생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때 선생님께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어 잘 못하지만 한국어수업 재미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선생님 아버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진 이야기!”

2009년, 내게 한국문학작품 수업을 들을 때,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한 도막 들려준 것을 기억하고 있나 보다. 8살 무렵 한겨울에 나는 열이 펄펄 끓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아버지는 아버지의 낡은 자전거에 나를 태우고 눈길을 달리다가 그만 미끄러졌다. 눈이 수북이 쌓인 덕분에 우리는 다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 괜찮으세요?”라고 묻자 아버진 “우리 주리가 아버지 다치지 않았는지부터 묻는구나. 다 컸구나!” 하시면서 껄껄 웃으셨다는 이야기다. 엠백초는 한국어를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도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글썽이며 들려준 한국어 선생님의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이었던가 보다.

내년 8월쯤에 결혼을 할 거라며 그때 초청장을 보낼 테니 꼭 오라는 당부를 남기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결혼을 해서 예쁜 신부와 같이 다시 한국유학을 하고 싶다는 말도 전했다. 세월호 사고로 우울한 5월을 맞이한 나에게 따뜻한 정과 새 힘을 주고 간 제자, 엠백초에게 고맙다. 아마 엠백초에게도 한국은 따뜻한 정을 느끼고, 새 힘을 충전하는 제2의 고향이 아닐까 한다.



每天忙碌着的我没有办法时刻关心他，最多也就是偶尔挤出一点时间一起吃个饭而已。而他却在毕业后，大老远从中国赶来看望我。对此，一方面表示感谢，另一方面却又要对那时不能很好地给他提供帮助表示抱歉。如果我向他透露出这样的情感，他会说：“老师，不会啦，没有关系的。不用为我太费心。我是真心谢谢那时您对我做的一切。虽然我的韩语不是很好，但是真心感觉那时候的韩语课很有意思，以至于到现在，那一幕幕都还能像电影一样在脑海里清晰地播放。就像老师的父亲骑自行车不小心摔倒的故事。”

那好像是他2009年听我上韩国文化作品鉴赏课时，我讲过的一个关于我的童年时代的小片段。8岁那年的冬天，我正发着高烧。在那个交通还不是很发达的年代，父亲带上我踏着他那岁数比我还大的自行车行驶在雪地上行驶，突然，滑到了。多亏地上那厚实的积雪，我们才没有跌伤。我问道：“爸爸，没事吧？”“我们柱利长大了，没想自己居然先关心爸爸那！”父亲咯咯笑着说到。仅管Yan Baicao的韩语水平不那么得好，但是听到我讲到父亲的那段时，他的泪水不知何时在眼眶里打起了转。

“明年我就要结婚了，到时候我会将请帖寄过来的，一定要来哟！”留下叮嘱后，就回中国去了。他还告诉我，婚后想带着漂亮的媳妇一起回到韩国再次留学。当我们还沉浸在5月“岁月号”给我们带来悲痛情感的时候，闫百超，这个给我送来热情和正能量的学生，谢谢你！也许对于闫百超来说，韩国，他的第二故乡，也正源源不断地给他的生活注入着热情与正能量吧！

》 우송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이주리
又松大学 韩国语教育院 李柱利

오래전 서툰 한국어지만
자신의 행복관을 표현한
엠백초의 글과 수업 중
모습이다.

행복이란?

엠백초 :

인생에서 행복한 일?

대학교 입학?

생일파티?

좋아하는 여자 만날 때?

인생은 여행처럼,

목적 아니고 과정이에요.

꼭 행복한 일은 너와 같이 갈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교수님께 致爱我们的教授



교수님!

한국에 와서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하면 바로 이 교수님을 만난 것이예요. 교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고 따뜻함으로 감싸 주셨어요. 교수님을 볼 때 바쁘지 않은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기 초에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수강신청부터 시작하여 학교생활을 잘 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한국생활에 불편함을 없게 해 주시려고 애쓰십니다. 또한 새로 온 학생들, 선배들, 후배들 모두 모여 개강식을 할 때도 교수님은 우리가 자리를 잡고 편하게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서야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번 문화답사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도시락을 준비하셨어요. 처음엔 식당 아주머니가 식당에서 도시락을 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회용 장갑을 끼고 혼자 20명의 도시락을 바쁘게 싸고 계시는 교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그 도시락을 나눠 주면서 '등산 잘하고 맛있게 먹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시는데 그 미소를 보면서 눈물이 나서 시선을 어디다 뒀아 할 지 몰랐어요. 그 순간 고향의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엄마 같은 따뜻한 교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다시는 이런 분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래의 세계를 잘 개척하고자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어요. 대학원을 준비할 때도 교수님은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에 맞게 진학 상담을 해 주셨고 추천서를 다 써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수님 같은 한국어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이제 교수님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졸업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저는 진심으로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교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영원히 잊지 않고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우리들 걱정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교수님의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수님! 매일 매일 행복하게 웃으시고 건강하세요!

2014년 5월 15일 왕연 올림

教授!

如果问我来韩国最感到庆幸的是什么的话，那就是与这位教授的相遇。教授不仅带给我们感动还用温暖包容着我们，我似乎从来没有看见教授不忙的身影。从学期初学生们一个个选课开始为了使我们很好地展开学校生活给予指导以及为了消除我们在韩国生活的不适感而费心。另外，聚集全部新来的学生们、前辈们、后辈们一起进行开讲式的时候也是确认我们都找到位子安心坐下并吃到了才最后一个坐下开始吃饭。

在这次的文化探访中也受到了很大的感动。清晨很早起准备便当，一开始我以为是食堂的大妈包的便当，但是当我看见戴着一次性手套独自忙着包20个人便当的教授时吓了一跳。教授一边分发着便当一边笑着说：“登山后好好吃啊！”看见教授的微笑我因为流泪而不知道将视线放在哪里。那一刻，在家乡母亲的样子在脑海里浮现，这样像母亲一样温暖的教授让我们怎么能不爱她呢？我想似乎再也遇不到这样的人了。

为了更好地开拓未来的世界，我决定升大学院。准备申请大学院的时候，教授也是对升学的所有学生进行了升学商谈并且都给写了推荐书。我的梦想是大学院毕业后回到家乡成为像教授那样的韩语老师，从教授那里学到了很多如今也要毕业了。

迎着教师节这天，我想真心地对教授说一句‘谢谢您！我爱您！’。我永远不会忘记与教授之间的美好回忆并会将其珍藏于内心。现在请放下对我们的担心吧。我们将不会忘记教授亲身展现的教导。

教授！愿您每天都幸福地微笑和健康！

王娟 谨上 2014年 5月15日

》 한국언어문화 전공 4학년 왕연
王娟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品杜鹃，敲水鼓

한국에 온지 4년이 되었다. 이만하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할 만한데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삼겹살을 구워먹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국 사람들에게겐 평범한 일인데 나를 비롯한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일일 것이다.

계곡에 도착해 적당한 자리를 고르고 짐을 옮기고 하는 과정은 좀 힘들었지만 조금 바쁜 뒤에 계곡과 산을 바라보니 아름다운 나무의 신록과 맑은 계곡물에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갔다. 짐을 모두 옮기고 나니 배가 고팠다. 숯불을 준비하는 과정은 좀 귀찮은 일이었지만 숯불 위에서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적당히 소금을 뿌리면 다른 소스가 필요 없이 맛있는 숯불구이가 완성된다. 다른 어떤 요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다. 몇 시간 뒤 다시 배가 고파져서 라면을 끓여먹었는데 라면마저 맛있었다. 음식은 누구와 어디에서 먹는지가 맛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다. 시설 좋은 식당보다도 이런 자연 속에서 음식 맛이 더 좋은 것 같다.

나는 평소에 적극적인 편이어서 한국 문화에도 잘 적응해 왔고 새롭게 마주치는 한국 문화도 마치 새로운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즐겼다. 그렇게 4년을 지냈는데도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몇 년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몇몇 친구들은 한국문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편하니까 피하려 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기도 했다. 주로 중국 인터넷을 보고, 중국어로 된 게임을 하고 중국음식을 시켜 먹고 중국친구들과만 만나다 결국 공부를 마치고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난 친구들이 많았다.

물론 중국친구를 만나고 중국어로 말하고 중국음식을 먹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하던 친구들은 청정한 계곡에서 친구를 만나 즐거운 대화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또한 계곡에서 구워먹는 숯불구이, 그 특별한 맛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아직도 새로운 모험이 많이 남아 있길 바란다.

来韩已有四年之久。这个程度，应该可以做到对韩国的文化了如指掌的地步了。但此行，在小溪边悠闲自在地烤肉、歇息的体验倒还是第一次。这些对韩国人来讲不足为奇的，对于一个留学生来说，却是一次陌生而又新奇的经历。

在溪边，我们很轻松地找到了一个舒适的位置，但将行李从车内搬到目的地的过程却是艰辛的。一阵忙碌之后，我们坐下来稍作休息。面朝山水，我们看见树枝上萌出了新芽，水中的一切都顺着水向下游流淌。行李配置完后，肚子不知不觉饿了。仅管引燃木炭的过程令人感到不耐烦，但看着汁水缓缓地从肉里渗出，慢慢变熟的过程又是多么值得赞叹的事啊！在肉上稍稍撒一点盐，无需任何多余的辅料，美味的碳烤肉就可以出炉了。这是其他任何料理都无法媲美的啊！数小时惬意得享受之后，肚子又渐渐饿了起来。我们重新起火，煮上了泡面，在这样的情景下，泡面都变得那么得美味的。同样的美味，随着地点、人物以及心境的不同，会不断发生微妙的变化。比起精美装饰着的高级餐厅，在大自然的拥抱下享受的食物更是美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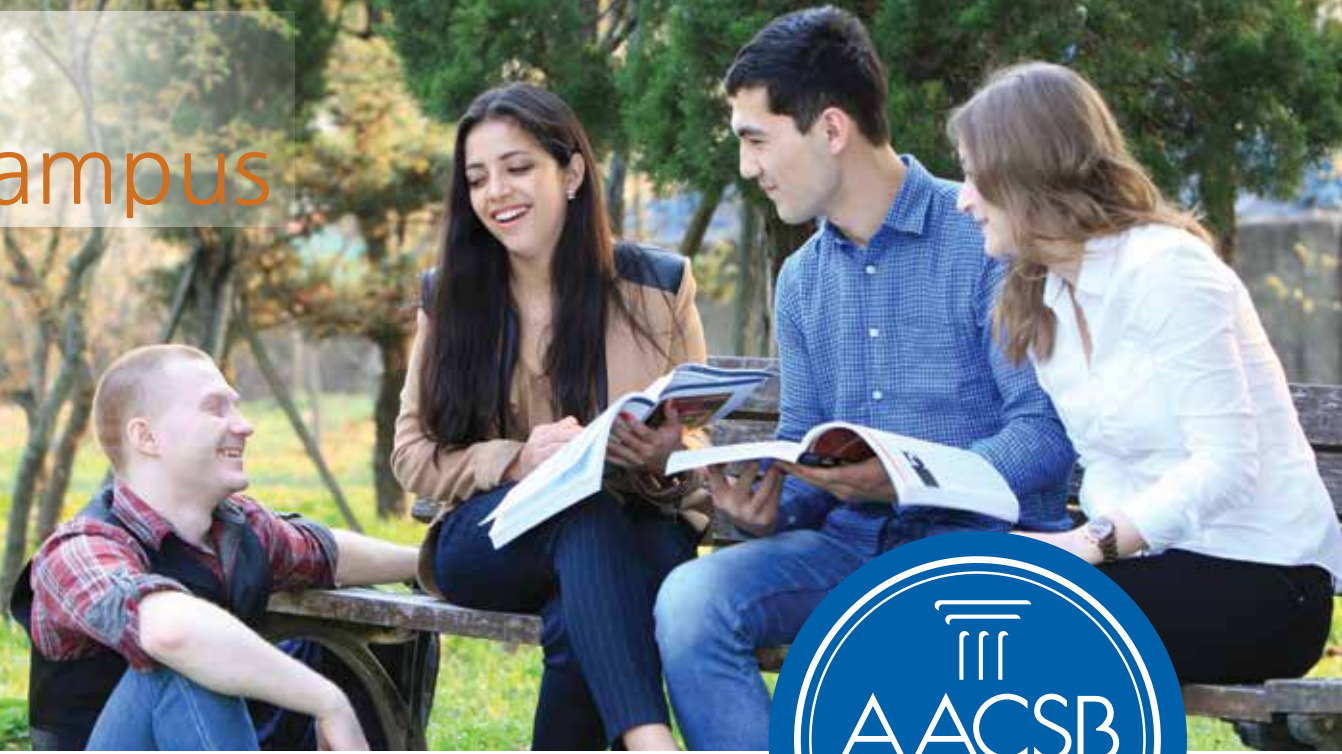
我生性积极向上，能很好地理解与适应韩国的文化。对于新认知的文化，我也会带着好奇和冒险的心态去体验它享受它。尽管来韩四年之久，再次面对新文化，终于明白，一个国度的文明与内涵不是一两年就能完全体会得了的。但就在我们之中，还有很多朋友不能很好地理解韩国文化，也不懂该如何去接受它们。看到那些整日整夜窝在宿舍里反复刷新着中国网站，玩着中国游戏，点着中国外卖，只和中国朋友见面，最终学无所成地返回中国的同学们，心里不禁为之感到惋惜。

是的，作为中国人无论在哪里，和中国人打交道，用中文交流，吃中国菜都是做起来很轻松的事。但是那些只挑自己会做的事去做的同学，是无法体会到和朋友们在清澈的小溪旁举杯邀饮的乐趣，更无法品尝得出碳烤肉中特殊的滋味。在韩国剩下的日子已经屈指可数了，但我依旧期待能发现和经历更多新的冒险！

》 C-MBA 석사과정 전정
C-MBA 硕士专业 钱郑



안녕 in campus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Sol-Bridge 国际商学院

우리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이 세계 최고 권위의 경영학 교육 국제인증인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인증을 취득하였다.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International) 인증은 하버드, 와튼, 컬럼비아대학교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에서 시작된 경영학 교육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적 인증으로 전 세계 대학의 5% 미만, 미국 대학의 약 10% 만이 보유하고 있을 만큼 심사가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의 AACSB 인증 취득은 국내 대학들 중 14번째로, 비수도권(서울 경기 이외 지역) 사립대학 중에서는 최초이며 특히, 설립 6년 만에 취득이라는 세계 최단기록을 수립하는 등 매우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존 엔디컷 총장은 “지난 3월, AACSB 방문실사평가단이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을 방문하여 학사부문을 중심으로 대학의 커리큘럼, 재정, 교수진, 교수법, 학생 만족도 등을 평가했는데 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뿌듯하다.”며 “이번 인증 취득을 계기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경영대학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AACSB :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International)는 국제적인 경영 및 회계학 교육기관의 모임으로, 1916년 미국 내의 경영학 및 회계학 교육기관의 평가와 수준 인증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02년부터 전 세계의 대학으로 인증의 범위를 넓혔다.

又松大学Solbridge国际商学院成功获得了全球首屈一指的管理学教育最权威国际认证即AACSB(国际高等商学院协会)认证。

AACSB(国际高等商学院协会: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International)认证是由哈佛大学、宾夕法尼亚大学、哥伦比亚大学等世界一流大学发起的全世界管理学教育最权威认证,目前全球仅有不到5%的商学院取得了此项精英认证,美国大学中也仅有10%获此殊荣。AACSB教育认证制度之严、标准之高、冠居全球之首,世所公认。

Solbridge国际商学院是韩国第14所取得AACSB认证的大学,在非首都圈(首尔京畿道以外地区)私立大学中尚属首例。Solbridge国际商学院仅成立六年就获此殊荣,成为全球通过AACSB认证的最年轻的商学院,这一认证的获得见证了Solbridge国际商学院的快速发展壮大。

又松现任校长John E.Endicott说:“去年三月, AACSB评估团到访 Solbridge国际商学院,以本科为中心,对大学课程设置、财政、师资、教学方式、学生满意度等方面进行了综合评估。非常欣慰的是我院在所有领域均得到了评审团的一致好评。”John E.Endicott表示, Solbridge国际商学院 将借此契机通过运营多样化的项目,力争自身打造为亚洲最具代表性的国际商学院,搭建全球交流网络,提高学生综合竞争力。”

国际高等商学院协会(英文全称: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International) 1916年 成立之初, 主要致力于提高和促进美国国内工商管理学和会计学高等教育水平, 2002年发展成为全世界范围内商学院项目的最权威认证机构。目前为止, 中国大陆仅有北京大学光华管理学院、清华大学经济管理学院、中欧国际工商学院等10所商学院通过此认证。

제3회 한국어·중국어 말하기 강화 프로그램 발표회 第三届 韩国语 中国语口语强化活动发表会



지난 6월 5일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제3회 한국어·중국어 말하기 강화 프로그램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회는 예선을 통과한 9개의 팀이 경쟁을 펼쳤는데, 영예의 대상은 한국어 회화 5반과 중국어학과 1학년으로 구성된 '팔인팔색' 팀에게로 돌아갔다. '팔인팔색' 팀은 과제로 수행했던 '직장'이라는 주제를 참신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회화 실력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훌륭한 연극을 선보였던 한국어 회화 6반과 중국어학과 2학년으로 구성된 '우공이산'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기타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就在刚过去的6月5日，第三届韩国语、中国语口语强化活动发表会顺利在又松大学图书馆地下一层的讲堂里展开。

此次发表会是在之前通过预选的9个组之间展开的角逐，荣誉大奖被韩国语会话5班和中国语系1年级共同构成的“八人八色”组获得。“八人八色”组凭借出色的旧体新思手段再新了课堂中练习过得“职场”主题和卓越的韩国语会话实力，获得了大众的好评。韩国语6班和中国语系2年级学生共同组成的“愚公移山”凭借精湛的演技获得了最优秀奖（一等奖）。其他获奖名单如下：

우수상 : 회화 5반/ 중국어학과 1학년 '일석이조',
회화 7반/ 중국어학과 2학년 '팔방미인'

장려상 : 회화 5반/ 중국어학과 1학년 '훈남훈녀'
회화 6반/ 중국어학과 2학년 '드림팀'
회화 7반/ 중국어학과 2학년 '막역지우'

참가상 : 회화 6반/ 중국어학과 2학년 '행복가족'
회화 7반/ 중국어학과 2학년 '죽마고우'

제5회 솔브릿지 한국어UCC대회 第五届 Sol-Bridge 韩国语UUC大赛



2014년 5월 23일(금) 솔브릿지 4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솔브릿지 한국어UCC 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13편의 한국어 UCC가 상영되었다.

이날 대회의 우승은 「우리들의 한국」을 발표한 첸레나 외 4인 팀에게 돌아갔는데 이 작품은 한국에 온 유학생들에게 한국이란 무엇인가를 그린 비디오로 재미있는 캐릭터와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대사로 인기와 높은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2위는 「현대 추향전」을 발표한 마디알 외 15인 팀, 「별에서 온 은밀하고 위대하고 엽기적인 그대」를 발표한 아디 외 4인 팀, 「영화 세계에서

한국」을 발표한 세르게이 외 4인 팀이 공동 수상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황운광 부총장님은 축사를 통해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금 더 즐겁게 배우고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한국어 UCC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2014年5月23日(周五)，第五届韩国语UCC大赛在Sol-Bridge4楼大讲堂里隆重地举行。大会中一共上映了先前预选通过的13个UCC作品。

本次大会优胜组为《我们的韩国》，它是由QIAN RUI NA等5名学生一起完成的。这个视频生动地描绘出了留学生们心中的韩国。有趣的人物设定和具有教育价值的台词使得他们在众多参赛者中脱颖而出，赢得了非常高的评价。《春香传》，《来自星星隐秘而伟大的野蛮的你》和《电影世界里的韩国》同时获得了二等奖。

在大会进行过程中，副校长黄云光先生对本次大会进行了致辞。在讲话中黄云光先生反复强调了韩国语学习的必要性，希望学生们能在学习中享受它，在学习制作UCC作品的过程中掌握更多积极有用的韩语表达方式。

안녕 in
campus

독해 / 회화 / 집중한국어 반

우리 이렇게 지내요!



항상 즐겁게! 스마일~



멋진 포즈로 찰칵!



상금 발랄하게 다 모였다!



언제나 행복한 우리반~



귀욤귀욤~귀요미들~



"사랑해요, 고마워요, 함께라서 행복했어요!"



겉으로는 미미하지만 속으로는 싹싹하다구요~



우리 예쁜 선생님 꽃을 찾아보아요^^



우송의 꽃 중의 꽃



막강 귀염둥이들 ^^



4명뿐이지만 모두 미남 미녀지요^^

안녕 in the world



중국 부양사범대학교



재무관리학과 12학번 학생들로 TOPIK을 끝내고 한국에 유학 갈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재무관리학과 13학번 학생들로 학생들이 수업 후 연습과 복습을 하기 위해 찾는 도서관 앞에서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지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예술디자인학과 12학번 학생들로 학생이 동영상을 보며 '한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시각전달디자인학과 13학번 학생들이 회화 시간에 대화문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마안산사범고등전문대학

제2회 한국 문화제

2014년 5월 13일~15일 제2회 한국 문화제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 및 한중 교류의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첫째 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만드는 방법 및 시식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평소에 접해 보기 어려운 한국음식과 한복에 대해 잠시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둘째 날에는 교사의 강의를 이어졌는데 권오명 교사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국문화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서징흠 교사는 한국에서의 유학경험을 소개해 한국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고, 홍성준 교사의 진행으로 한국 전통민요 '아리랑'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주제가 'My Destny'를 배워보는 시간을 끝으로 둘째 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마지막 날인 15일 저녁에는 '한중 문화교류 및 문예의 밤'이라는 주제로 한국 노래, 춤, 한국 전통혼례 시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한국 전통혼례 시범에서는 생소한 한국 전통혼례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중들과 한국어 번안곡인 '친구'를 함께 부를 때는 한중 문화가 어우러지는 깊은 인상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과 우송과의 인연을 돌이켜 보며

四川大學 박사과정 중에 충칭여성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본 대학에서 강사로서 반 년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송대학교 유학예정자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다. 이것이 우송과의 첫 번째 인연이었다. ...중략... 진도 8의 '5.12 汶川대지진'의 그 날을 지금도 가끔 머리에 떠올리곤 하는데, 그 참사 속에서도 희생적이었던 교사들의 사례를 보며 진정한 교육자는 지식, 애정, 열정 등을 골고루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201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우송과의 두 번째 인연을 맺고, 우송의 중국파견교사로서 안휘성 마안산시 소재의 마안산사범고등전문대학에서 우송정보대학 유학예정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학습

자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것은 비록 그들이 각자 실력 차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대할 때 그들도 같은 생각과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필자가 많은 분들에게 지도를 받고 신세를 진 것처럼 우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송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처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요약본



》 마안산사범고등전문대학 권오명



소주대학교

다음 학기 우송대로 유학가요



2학년 학생 중 절반가량이 2+2유학제도에 따라 이번 학기를 마치고 우송대에서 공부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은 포부와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3학번 한국어반 학생들



지난학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소수정에 소주대 1학년 한국어반 입니다. 대부분 학생이 여름방학 때 우송대 캠프 가려고 신청했습니다. 한국어반 이외의 학생들도 많이 신청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하북사범대학교

회화대학



2014년 5월 15일, 지난 학기부터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대외한어학과 학생들이 한국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떡볶이를 만들면서 한국의 음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화까지 배우고, 떡볶이 재료와 조리기구 등의 단어도 익혔습니다. 떡볶이가 기대만큼 맵지 않아 아쉬워하긴 했지만 다들 좋아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솔브리지 유학 준비반



3개월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솔브리지 유학준비반. 매일 수험생 같은 생활의 반복이지만 한국어 시간은 늘 화기에 애하다. 곧 있을 영어시험(ELTS) 준비로 긴장 되고 힘든 요즘, 간단한 다과와 수다로 시험의 스트레스를 날려 본다. 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기에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더욱 기대된다.

동릉대학교

지난 3월 27일에 동릉대학교 실외농구장에서 “제2014년 양광체육컵” 농구 결승전이 막을 올렸다. 2주간의 치열한 예선전을 거치고 국제경제무역학과 2+2반(우송대 유학반)이 소속된 경제학원의 농구부가 동릉대학교 전체 12개 단과대학 중에서 최종 결승전에 도달한 것이다. 2시간여의 열띤 경합 끝에 경제학원의 농구부는 준우승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제2014년 양광체육컵”에서 농구시합 준우승의 타이틀을 차지한 경제학원의 농구부는 선수로 참가한 학생들 중 4명이 우송대 유학반 학생들이어서 한중 합작반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13학번의 궉준 학생은 개인 준우승의 영광을 차지해 의미를 더하였다.



학생들과의 소소한 일상 그리고 보람

제가 있는 안휘성 동릉대학교 국제무역 중한반에는 방원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작은 키, 하얀 얼굴에 뿔테안경을 끼고 수업 시간에는 항상 맨 앞에 앉아 열심히 수업을 듣는 아주 전형적인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바로 긴장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발표를 하거나 남들 앞에 혼자 서면 하얀 얼굴은 홍당무가 되고 몸을 바들바들 떨니다. ... 중략 ... 그러던 어느 시험 날 어느 때와 같이 불안함에 떨고 있는 방원에게 저는 주먹인사를 건네며 ‘방원~ 시험 잘 봐. 아자아자 화이팅~’ 하고 손을 한번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방원은 그 후부터 시험이나 발표가 있으면 와서 제 손을 한번씩 꼭 잡는 게 아닙니까? 제 손은 별안간 방원 학생의 부적

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픽시험을 본 날도 자신의 부적을 한번 꼭 잡고 시험장에 들어간 방원은 이번에는 중요한 시험이라 더 많이 긴장했는지 시험이 끝나고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면서도 그 부적을 찾아 꼭 잡더라고요.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다음날, 저는 방원 학생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손이 너무 따뜻합니다. 선생님의 손을 잡으면 너무 안심합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면 보고 싶겠습니다. 선생님은 힘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세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후략

요약본

» 동릉대학교 한은수

충청세종학당

제9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2부 공연 사회를 보는 충청세종학당 김태석 집행원장



지난 4월 12일 중경시 래디슨 블루호텔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축사한 가운데 300여명 교민이 참석 성대한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 종료후 오찬을 곁들인 축하공연은 김태석 교수의 진행으로 다양한 공연과 상품 시상으로 교민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기념촬영중인 재중경한인(상)회
부회장단과 김태석 자문위원



지난 4월 12일 저녁 정홍원 국무총리 주최 교민간담회가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있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중경을 방문한 대한민국의 최고위급 지도자로 중경임시정부청사와 광복군 사령부 복원 예정지를 둘러보고 교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한복을 입은 세종학당 학생들과 기념촬영한 김태석 집행원장과 세종학당재단 파견 하태정 선생님



황산대학교

2014년 4월 22일, 황산대학교 1학년 중한반 33명의 학생들은 다같이 김밥을 먹은 후에 8개의 조가 준비한 짧은 콩트를 발표하였다. 각 조원들이 직접 대본을 만들었으며 준비한 대사를 외워 “물건 팔기” 활동을 하였다. 자체적으로 옷과 과일을 준비하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실감나는 연기력까지 겸비하여 개성 있는 대사를 구사한 학생들도 있었다.



상주유국군 고등직업기술학교

2014년 4월 9일, 상주유국군고등직업기술학교 상무한어과 1학년 1318반 학생들은 따뜻한 봄을 맞이해 교정에 모여 사진을 찍고 친목을 다졌다.



어학연수

과정소개

1. 수강대상

- 토익 중급(3, 4급) 취득 후 대학 및 대학원 진학 희망자
-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

2. 정규과정

기 간	10주
강좌 내용	• 오전 : 4시간(1일)×5일(월~금)×10주 = 200시간 • 수준별(초급1·2, 중급1·2, 고급1·2) 학습 • 역사탐방, 문화체험 실시

학사 일정 소개

학 기	2014 - 봄학기	2014 - 여름학기	2014 - 가을학기	2014 - 겨울학기
기 간	2014. 02. 24 ~ 2014. 05. 02	2014. 05. 19 ~ 2014. 07. 28	2014. 08. 18 ~ 2014. 10. 31	2014. 11. 17 ~ 2015. 01. 27
서류접수 마감	2013. 12. 31	2014. 03. 31	2014. 06. 30	2014. 09. 30

비용안내

구 분	금 액	비고
수업료	1,200,000원	
기숙사비	800,000원	2인 1실
총 금액	2,000,000원	

※ 금액은 한 학기 기준이며, 매학기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방법

1.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2. 지원절차

	상담	지원서류 제출
중국	• 연락처 : +82-42-629-6673 • 이메일 : wklibest@gmail.com	1. 입학지원서(지원비 50,000원) 2. 호적부 원본 3.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4. 학력인증서 원본 (http://cqy.chinadegrees.cn/cn/) 5. 여권사본 6. 학생 및 학부모 신분증 사본 7. 신체검사증명서 원본

합격통지	비자수속	입국
	우송대학교 비자지원팀 (개별연락)	

	상담	지원서류 제출
기타 국가	• 연락처 : +82-42-629-6764 • 이메일 : wklibest@gmail.com	1. 입학지원서(지원비 50,000원) 2. 여권사본 3.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4.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5. 미화 6,000\$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6. 신체검사증명서 원본

합격통지	비자수속	입국
입학허가서 발급	본국 영사관에 직접 문의	



문화캠프

프로그램 일정

▶ 1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9:00 ~ 12:00	입국	캠퍼스 투어 오리엔테이션	계절 여행	한복 체험	서울 투어	K-pop Dance
14:00 ~ 17:00	한국어 수업 시티 투어	한국어 수업 시티 투어	한국어 수업 시티 투어	한국어 수업 시티 투어	한국어 수업 시티 투어	수료식 쇼핑
						출국

▶ 2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9:00 ~ 12:00	입국	캠퍼스 투어 오리엔테이션	한복 체험	서울 투어	한국어 수업	자유 시간
14:00 ~ 17:00	한국어 수업 시티 투어	한국어 수업 시티 투어	한국어 수업 시티 투어	한국어 수업 시티 투어	한국어 수업 시티 투어	자유 시간
09:00 ~ 12:00	자유 시간	계절 여행	태권도	한국어 수업	놀이동산	출국
14:00 ~ 17:00				한국어 수업	놀이동산	출국

캠프 안내사항

1. 캠프비용

기간	1주	2주	3주	4주	한국어집중(3주)
비용	USD 500	USD 900	USD 1,300	USD 1,600	USD 1,000

※ 세부일정 및 캠프비는 날씨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문의

- 전화 : 영어권 +82-42-629-6764 / 중국어권 +82-42-629-6673
- 주소 : 300-719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무송도서관 7층 704호
- E-mail : wklb@naver.com
- 홈페이지 : http://www.wklb.co.kr

언어캠프(한국어, 영어)

▶ 3주, 4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9:00 ~ 12:00	입국	캠퍼스 투어 오리엔테이션	수업	수업	수업	자유 시간
14:00 ~ 17:00	레벨 테스트 시티 투어	수업	서울 투어	수업	수업	자유 시간
09:00 ~ 12:00	자유 시간	수업	수업	계절 여행	수업	자유 시간
14:00 ~ 17:00	수업	한국어 수업	한국어 수업	한국어 수업	한국어 수업	한국어 수업
09:00 ~ 12:00	자유 시간	수업	수업	놀이동산	수업	자유 시간
14:00 ~ 17:00	수업	태권도	놀이동산	놀이동산	놀이동산	놀이동산
09:00 ~ 12:00	자유 시간	수업	수업	놀이동산	놀이동산	놀이동산
14:00 ~ 17:00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

1시간, 수준별 수업

안녕
An-nyeong



우송한국어교육원
Woosong Korean Language Institute

300-719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우송도서정보센터 704호 우송한국어 교육원
TEL. 042.629.6697, 629.6698